



2011  
사. 순. 절. 목. 상. 집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 권두언

Alabama 대학교의 Bear Bryant라는 전설적인 미식축구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남긴 말이 종종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나 때문에, 일이 그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책임,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당신 덕분에.” Bryant코치가 그토록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당신 때문에, 일이 그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책임,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죄가 들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이 잘 안 된 이유가 당신의 아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셨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러하듯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사순절 기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 내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B40 (Brookline 주민의 40%가 믿음의 식구가 되길 원하는 사역)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해도 많은 수고를 해주신 홍보위원회와 예배위원회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영길 담임 목사



# 새로운 마음 그릇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오! 사랑의 주님, 고난의 주님

우주의 시작과 함께 존재하셔서 2,000년전에 구세주로 오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흘러갈 2011년 사순절을 준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지구별에 오신 주님,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 화해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어두운 곳을 비추는 조그만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나만의 지식, 편견, 불신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 그릇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그 그릇에 담고 싶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처럼 세상과 이웃에게 설레임과 열정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중보의 기도와 축복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웃는 얼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보면 아름다운 생각, 좋은 습관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지요.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선영 장로



# 목걸이에서 알람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3)

우연히 TV에서 방영되는 외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개 목걸이’였다. 어느 미래 도시의 감옥시스템 이야기인데, 감옥이 죄수들로 만원이 되면 2인 1조로 자동폭발 전자목걸이를 착용시킨 후 가석방시킨다. 그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서로를 감시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보다 더 구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영화였다.

그 당시 나는 암 수술 후 병원에 정규적으로 관찰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수술 당시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며 나의 죄성에 대한 징벌이라며 질책도 했고, 나 스스로도 죄의 댓가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 매일 매일 회개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영화 속 개 목걸이를 착용한 죄인처럼 하나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 전전공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했는데, 왜 나의 삶은 너무나도 구속적이고 기쁘지 않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성도의 삶인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죽음’으로 얻는 우리 삶이기에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지, 이렇듯 엷매여 있는 개 목걸이 같은 삶은 아니지 않나? 하면서 처음으로 주님께 말씀 드렸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아님 정말 의미 없는 회개를 반복해야 하나요?”

주님은 응답을 주셨다. “그것은 개 목걸이가 아니고 ‘알람’이다. 네가 나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멀어지면 나는 너에게 알람을 울린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무너졌다. 그 어렵고 무서운 기간이 나에게서는 하나님께 향하라는 알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도 2번 더 알람이 있었다.

전신에 집사

.....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벌 속에서도 알람을 울려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예민함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내 주장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기도: 주님,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부르클라인에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 나의 약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24)

저는 사순절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과 본능에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저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당당히 고백을 하지만, 저의 삶에서 제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었다고 입술로 당당히 고백은 하지만 저의 행동에서도 그 당당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저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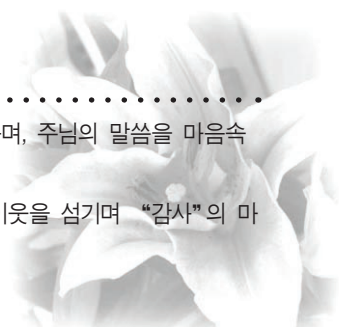
나눔을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누군가 저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마 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제 삶을 맡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한나 교우 (청년 1부)

.....  
기도 :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브루클라인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 호흡이 있는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6)

너무나 평범하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느 날의 청천벽력같은 소식, 한참 젊은 나이의 모영에게 찾아온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 거듭되는 입원과 퇴원들 혈액수치에 매일의 희비가 엇갈리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모영이와 우리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께서만 그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는데 나와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웬일인가

료들 옆에서 소리없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 캄캄한 현실 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밝음으로 계시던지 아무 받을 자격없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영이의 병이 완쾌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부족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여영 권사

목사님 이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기도 친구들의 기도,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한국 기도 모임, 식구들의 기도 의료진들의 정성, 어린 치

.....  
기도: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 주님, 저희 지역사회에 속한 여러 인종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교류를 통해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 떠남의 절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1:31)

사순절은 기도와 금식 내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떠남의 삶입니다. 그동안 젖어있던 우리들의 습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타한 기도 생활에서 떠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울러 깊은 기도를 통해 묶여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해방시켜 자유로이 주님과 만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맞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갈 바를 모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혀 기도의 맥이 잡히지 않을지라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방황하십시오. 우주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금식과 절제는 우리를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삶에서 떠나게 합니다.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 알게 됩니다.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육신의 편안함 없이는 견딜수 없는 우리들임을 알게 됩니다. 너무도 연약한 나그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정욕과 쾌락의 삶 말고도 너무도 넓은 세상이 있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주

와 같은 세계를 체험할 것입니다. 금식과 절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기에 금식이나 절제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요즘 한 끼를 먹어도 최고로 맛난 음식을 먹으려는 욕망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동안 일주일에 한두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 먹는 것도 절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로 구제의 삶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물질이 아무런 힘이 없는 보잘 것 없는 물질로 보였지만 구제를 통하여 그 작은 물질 안에 있는 우주와 같은 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부터 떠나는 멋진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떠남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향한 떠남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떠남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순절에 충실하십시오. 기도와 절제와 구제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떠나십시오. 사순절이 마칠 즈음에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에서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떠남의 절기입니다.



이영길 목사  
(2010년 2월 21일 주일 설교 중에서).



# 주님의 계획

주님과 나 사이에 실을 엮어 가며 천  
을 짜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색깔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분은 어떤 색이어야 되는지 아십니  
다. 높다 높은 곳에서 그분은 전체의  
문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이 낮은 곳에서 아랫 부분  
만 볼 수 있지만 말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슬픔이란 실을 엮으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고  
충실하게 계속 일할 것입니다.

나의 실 통에 실을 채우시는 분은 하  
나님, 그분은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  
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머지는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성실하게 내 인생의 천  
을 짤 것입니다.

베들이 조용하고 실 통이 더 이상 움  
직이지 않을 때 주님은 화폭을 펼치시  
며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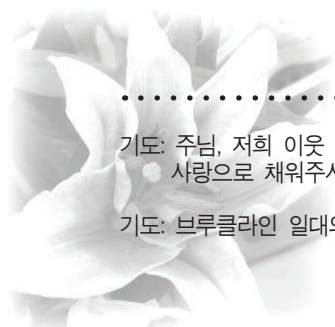
그분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의 문양 가  
운데 그분의 숙달된 솜씨 속에서 화려  
한 금실과 은실 만큼 칠후 같은 고통  
의 실이 왜 필요했는지들.....

작자 미상  
한수희 역

김켈리 작  
[슬픔을 딛고 일어나리] 중에서

기도: 주님, 저희 이웃 가운데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사랑을 구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삶에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 브루클라인 일대의 많은 성직자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내 인생의 화폭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편 23:4)

작년 이맘때쯤인가, J 교우가 어느 날 불쑥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였다. 내 직장 근처까지 와서 만나고 싶다고 하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만났더니 싱겁게 점심만 먹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기만 했다. 헤어질 때 조용히 한 권의 책을 건네주며 “다 잘 될 거야 현주씨, 그리고 이 책, 좋은 책이니 한번 읽어봐” 말하고 따뜻하게 웃곤 종종 걸음으로 다시 바쁜 길을 재촉하던 그녀...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를 격려해주려 왔던 것이었다.

“슬픔을 던지고 일어나라”...

만화의 주인공 캔디처럼 “외로와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를 외치며 씩씩하게만 살려고 하던 나이기에 웬지 책에 손이 가지 않았다. 내게 닥친 힘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도 슬프다고 호소하지 않고(투정이라 생각했다) 그냥 꺾꺾 참고만 있었다. 다 잘 될거라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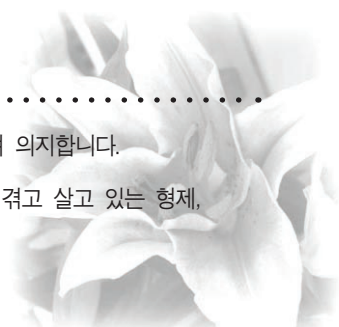
얼마 전, 우연히 눈에 띄인 그 책... 그 때 그 교우의 마음 씩씩이에 다시 감사한 생각이 들며, 문득 첫 장을 넘겼다.

그 때 한 시(‘주님의 계획’)가 있었고 갑자기 안도감이 들었다. 슬픔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것이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애써 부정하지 말고, 슬픈 순간에는 슬퍼하며, 그리고 그 슬픔을 주신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화폭에 다른 금실 은실의 순간들과 함께 소중히 담아놓으라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었다. 나를 그 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그 감정들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이현주 집사

.....  
기도: 어떠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기도: 주님, 이 보스톤 지역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 가난한 마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

화려한 빛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가 보신 분들이라면 눈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불거리에 라스베가스로 가기 전부터 마음이 아주 설레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친구들과 도시 이곳 저곳을 신나게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맑은 시간이 되어서야 저녁을 먹으러 한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몸집도 작은 할머니가 레스토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식당에 들어가려는 우리들에게 “I am hungry.” 라고 하며 처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느 거지와 다름없다고 여기고, 혹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을 때에는 그 할머니 생각이 나지 않더니, 문제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고 나서였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본 순간, 그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생각 났습니다. 동전 구걸을 하는 여느 거지와는 다르게 그 할머니는 ‘배가 고프다’ 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생각났

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날 밤 저는 피로운 마음으로 계속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 그 할머니가 서성이셨던 그 장소로 다시 찾아 갔습니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 아닌 염소로 낙인 찍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그 기억 때문에 이제는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화려한 라스베가스에서 만났던 초라한 할머니, 그 할머니를 외면했던 강박한 마음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얻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 자신 역시 이 땅 위에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은 자리에만 머물다가 떠나셨던 예수님,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봅니다.

안원미 교우 (청년 2부)

.....  
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이 제 마음에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물어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 브루클라인 근교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 신앙의 진리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아주 어려서부터 나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엄마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기독교인이었다. 교회는 나를 어른으로 자라게 한 큰 터전이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자연스러운 습관이었다. 그렇게 나의 삶의 반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나는 많은 좋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보아왔다. 선함을 외치면서 행동은 위선적인 사람들이 싫었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그 안에서 위선적이느니, 밖에 있으면 적어도 위선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주일을 거의 교회에서 보내는 엄마의 광신도적인 신앙도 싫었다.

어려서 재미있게 다니던 교회는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에 들어 가면서, 나의 비자의적 신앙은 혼돈을 겪기 시작했다. 마음이 답답해 성경을 읽으면 그곳에서 깨달음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무신론을 각인시켜 줄 뿐이었다. 구약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고, 땅을 차지 하기 위해 옆 나라들을 다 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썩은 고기를 유대인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는 팔라고 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수도룩할 뿐이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이기는 하지만, 그 종교 또한 인간의 삶을 더

선하게, 지혜롭게, 윤택하게 살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만의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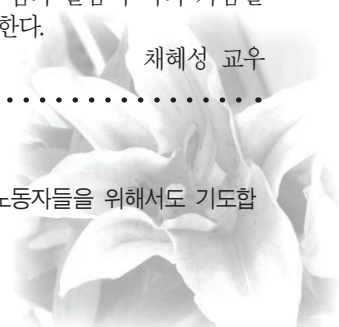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나의 잠정적 결론 또한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만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잘 성장해, 자상하고 인내심 많은 남편과, 건강하고 착한 두 아이들, 그리고 시간의 여유로움의 축복들이, 내가 이런 것 같지만은 않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든다. 웬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그 동안 나의 엄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들... 그리고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나의 불신앙이 앞으로 나에게 화를 불러 오지는 않을런지 하는 불안함이 밀려온다.

나는 아직도 무지하다. 이 눈부신 과학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 과학과 문명을 다 알지 못한다. 그렇듯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오랜 세월이 성경을 지키려고 순교하고, 선포하던 지식인들에게는 분명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진리를, 나도 이제 좀 더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진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채혜성 교우

기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 주님, 이 지역에서 어려운 조건 가운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 새 생명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4-5)

사순절입니다.

사순절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생각하면 감사함뿐만 아니라 죄송함도 떠오릅니다.

사순절 동안 이 점을 한번 더 마음 속 깊이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사함과 그 감사함에 대해 보답하려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앞으로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그냥 평범한, 또는 악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송주현 (청년 1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뿐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까지도 선하게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  
기도 :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기도: 브루클라인의 베다니 교회와 선교사역을 같이 하는 Primera Iglesia 스페니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가시면류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5)

지난해 봄날 뒷마당을 정리하던 중, 개나리 가지들 사이로 유난히 길게 뻗어 나온 가시나무의 가지가 눈에 띄어 보니, 거기에는 크고 작은 수 많은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주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떠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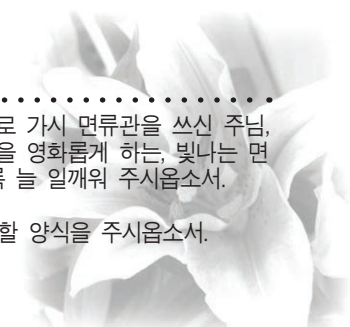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험한 가시 같은 저희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품에 안으시며, 더욱 깊은 찔림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통해, 오히려 저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김한나 집사

이런 가시 덩굴로 엮은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감과 동시에, 주님의 이마를 깊이 찌르고 있는 많은 가시중의 하나가,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나날이 짓는 크고 작은 죄들로 인해, 더욱더 크고 날카로운 가시로 자라, 더욱 깊숙히 주님의 살을 찢는 살아있는 가시로 말입니다.

기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스스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 이제는 나날이 참회하며 성화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 주님께 드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 주여, 브루클라인 일대의 Homeless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 우물가의 나그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다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6-7)

예수님은 당신의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 자에게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의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목마른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을 좀 달라.”

교우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릴까요? 나그네를 만나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를 만나는 미래 일기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나그네를 만나는 미래 일기를 같이 써 볼까요? 각자가 형편에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그네를 만나는 미래 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조만간 ECC가 완공이 되는데 가끔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곳에 찾아 온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물 길을 그릇도 없이 찾아 온 사람들을 초대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도 하고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순서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들

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들은 모두 “물을 좀 주세요” 절규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상상에 따른 미래일기를 써 보았습니다.

약 20년 후입니다. 2030년 2월 28일. 어느 중년 신사 내지 숙녀가 보스턴 한인 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을 두드립니다. 그 때는 다른 분이 담임목사님이시겠죠. 한 분이 찾아 와서 말합니다. 물론 영어로 말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25일, 제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보스턴 한인 교회에서 나그네를 초대한 다는 소식을 접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는 심한 의욕상실증에 걸려 있었는데, 본 교회 교우님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그 날 밤, 저의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나의 삶의 모토로 정하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저는 이 세상에 너무도 소중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임을 갈수록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온 우주가 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보스턴 한인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영길 목사  
(2010년 2월 28일 주일 설교 중에서.)



# 예수님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 24)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좇으며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뿐 만이 아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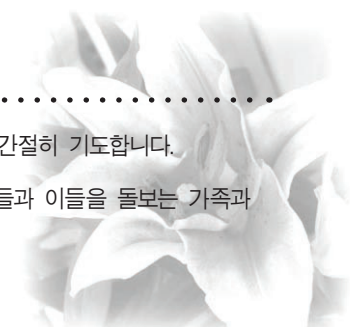
이번 사순절은 이제껏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즐기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손유현 교우 (청년 1부)

기도 :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 우리의 이웃 중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돕는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Hardened Heart

“...and they were utterly astounded, for they did not understand about the loaves, but their hearts were hardened.” (Mark 6:51-52)

It is hard to imagine how one could not believe in Christ even after witnessing such miracles. Growing up, I asked this question many times. The reality in the Bible is that clearly, many did NOT believe -instead their hearts were hardened.

Along many mission fields, I have personally witnessed supernatural miracles. Perhaps more importantly, I have witnessed those who witnessed the miracles. I used to believe that when someone's sickness was miraculously healed, he would fall to his knees and come to confess Christ as his Lord. But things didn't happen that way on the missions fields. Most did not believe that God had made a miracle occur.

It is not much different in developed countries. Most people, including Christians, shrug the notion that such miracles occur,

not accounting for the fact that their own limited experiences could limited their judgment. In many cases, the biggest factor behind their disbelief is their attempts to rationalize what they saw. We are so good at that. Time after time, we overestimate our rationality and reasoning skills. Only when we kneel down and confess that our minds cannot fathom God's grace, can we truly experience God's love. So in the dusty mission fields, I realize that a miracle even greater than physical healing is the miracle of the Holy Spirit enabling one's heart to accept Christ. That is the biggest miracle of all.

김대연 교우 (청년2부)

Prayer: Father, please help us get past our own human limitations and not allow our hearts to be hardened, that we may see the miracles that you place at our feet

기도: 부르클라인 일대에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46)

시인 구상과 화가 이중섭은 서로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모양이다. 이 두 사람이 첫 대면에서 안면을 텃을 때의 이야기란다.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눌 적에 서로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화가 루오의 ‘예수님’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했었다. 물론 만나는 당시에는 서로의 인상을 시시콜콜 말하지는 않았다만 우연치고는 참으로 묘하기도 하다. 다시 루오의 ‘예수님’ 그림을 사진으로 보았으며 당연히 수염난 구상 시인과 이중섭 화백의 모습도 찾아 보았다. 그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그들의 생각이 과히 틀리지 않았음을 보았고 읽었다. 피차 선한 모습을 같이 보였으므로 서로 루오의 예수를 닮았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구상 시인과 이중섭 화가의 모습은 고단해 보였고, 힘들어 지쳐보였다.

하지만 루오의 ‘예수님’ 그림에서는 커다란 눈에서 선한 눈동자를 더 크게 보았고, 반듯하지만 힘들어 하며 땀방울 적서진 이마에서 고난의 아픔과 갈증을 보았다. 커다란 눈동자에서 왜 힘든 모습을 상상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짐작하건대 힘들어 하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고, 추운 이 겨울에 그 그림을 보았기 때문인가 한다. 아니면, 동그랗게 뜬 눈은 선함이 가득하다만, 이 세상에 남겨지는 후세를 걱정하는 듯 하기에 그런가. 날카롭지

않아,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 보여 성안(聖顔)이라 해야 마땅하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아닐까 한다. 고난의 봄이 꽃샘바람처럼 차고 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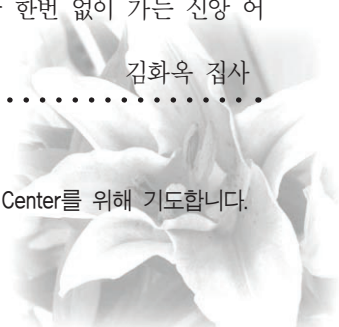
예나 지금이나 지극한 은혜는 피눈물 속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와 땀과 눈물 속에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굳게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지극한 모습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예수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말으신다 했다.

보스톤의 사월은 아직 춥다. 작년에도 추웠고, 재작년에도 아직 춥더니, 올해에도 추울 것이다. 꽃을 피워야 하는 날들이고, 개나리가 한창이어야 하며 진달래가 피어야 하는 시절이다. 하지만 아직 추운 바람에 꽃잎들은 피기도 전에 흔들리는데, 그게 애처롭다. 피어나서 살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 꽃잎들이 서러운 것이고, 살아있다는 기쁨을 맛보기 전에 추위에 떨고 있음이 안타깝다. 꽃샘바람이라더니, 아직도 차가운 바람에 꽃잎이 흔들린다. 고난처럼 추위 흔들리는 꽃잎이 애처롭다. 꽃샘바람 한번 없이 오는 봄이 어디 있으랴. 고난 한번 없이 가는 신앙 어디 있으랴

김화옥 집사

기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주여,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Brookline Mental Health Center를 위해 기도합니다.



# 십자가 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 12)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활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한없이 울고 통곡하며 슬픔의 경지에도 가는 밤,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디 이 슬픔이 기쁨의 앞자리에 있게 하소서.

저의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지극히 약하겠지만 당신의 임재를 상기하며 예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사랑에 빛진 자에서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나 이제 시들어 내 젊음의 푸르름이 안개처럼 사라진대도 선녀의 선물인양

나 이렇게 주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사오니 세상의 영화가 당신 앞에 허물어요 부끄러움인걸요

당신이 내 안에 없을 땐 사랑이란 이 두 글자가 무엇인지 오랜 세월 생각했어도 진정 정답은 없었어요  
인생 가을 지나면서 깨달은 그것은 당신의 벽찬 욕망이었어요.  
당신의 그 욕망은 주고 싶은 것뿐, 주고 또 주고 줄 것이 없어 피와 목숨까지 주신 욕망,

정녕 당신은 고귀한 욕망이었어요  
그 욕망이 사랑이란 정답이었어요  
그 욕망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인치소서.

주정대 집사

기도: 작아지고 낮아져서 이 생명 다하도록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기도: 브루클라인에서 수고하는 경찰관과 소방관 (Firemen)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I HAVE 100 CHILDREN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rely on your own insight.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Proverbs 3:5-6)

I am the mother of 2 beautiful and healthy children whom I love with all my heart. I love being a mother so much that I prayed for another baby and my husband and I tried for many years. Four times, I thought God was answering my prayers but four times, God told me, “No.”

Each loss left me in despair and I went through a dark time in my life. Why had God denied me this wish? I hadn't asked for more money or a bigger house or a more powerful job. I simply yearned for the gift of another innocent and precious life that I could nourish, raise and love. Had I been too selfish or sinful? Try as I might I couldn't understand God's refusal. My heart ached for the child I could not have and I felt a great emptiness inside. What had I done to deserve this sadness? Was God giving up on me? What was His plan? God gave me no answers.

Then last year, I became the director of the Sunflower Children's Group. I accepted the role with much hesitation and worry since I work full-time and did not think I could handle such a big responsibility. I tried to refuse

but God's calling was so strong that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I was still blind as to His intentions but I put my trust in Him.

It has only been in the past year that He has revealed this to me: that all along, He has had a plan for me. You see, instead of giving me 1 more child, God has given me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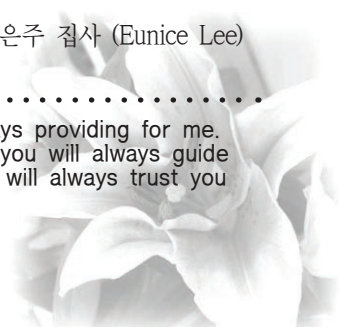
They are not my children by blood, yet they are my children by Jesus Christ. I don't get to see them every day, but every Sunday, they fill me with God's grace and my heart nearly bursts with joy!

I know now that God didn't give me a 3rd child because He wanted to give me the children of Sunflower. If I had become a mother of 3, I could not have become a Sunflower teacher and I would not be in this position. So it is with deep joy and gratitude that I serve Sunflower Children's Group. The 100 children and the 20 teachers of Sunflower have become my family in Christ. And I finally know that God has answered my prayers.

이은주 집사 (Eunice Lee)

Prayer: Gracious and Wise God, thank you for always providing for me. I know that you will never forsake me and you will always guide me. Though I may not always understand, I will always trust you and put my faith in you.

기도: 브루클라인의 선생님들과 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의 품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시편 23:6)

째각 째각 꿈에서 깨어 가만히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어봅니다. 잠들기 전에 그렇게 혼을 내서 또 그 때 꿈을 꿨나 생각하면서..

3년 전 큰 아이가 1학년일 때, 그 때만 해도 저는 교회나 성경책과는 담을 쌓고 하루하루 숨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고등학교 시절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친구들의 소개로 뜨겁게 시작했던 성경공부와 찬양모임,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서 어느새 저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이곳 보스턴에 와서도 다시 주님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가 학교에서 bullying을 당하고 힘들어 하면서 결국 눈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밝고 명랑했던 아이는 어둡고 조용한 아이가 되었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마르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리치료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아는 분의 권유로 교회를 오게 되

었습니다. 오직 큰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15년 만에 돌아온 주님의 품은 예전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이한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는 다른 이유와 소망보다 그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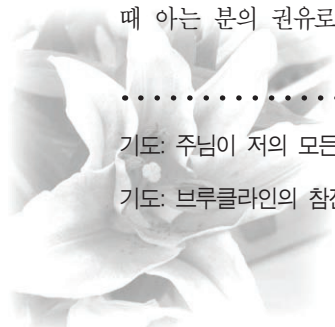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어깨에 놓인 많은 책임과 걱정들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들이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저의 기도는 어느새 걱정과 원망보다 기쁨과 감사로 더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큰 아이의 그 어려운 시간들이 멀어져 가는 저를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그리고 그 시간들조차도 주님께서 저를 업고 견고 계셨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유성민 교우

.....  
기도: 주님이 저의 모든 행사에 동행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브루클라인의 참전 용사들 (Veterans Group)을 위해 기도합니다.



# 나그네 야곱

“약한 양이면 그 가치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리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30:42-43)

야곱의 삶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곧 그는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택함 받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나그네와 숨은 이야기를 창조하시길 즐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 하고는 숨은 이야기를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숨은 이야기를 만드시기 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제일 가까워지고 그런 의미로 나그네가 되었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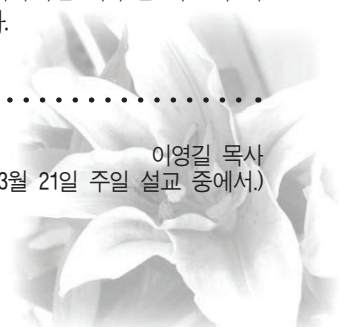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과 숨은 이야기를 펼치길 원하셨습니다. 비록 암체이지만 야곱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숨은 이야기를 펼쳐 가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나그네가 되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한 사람을 윤리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그네들은 숨은 이야기의 소유자들입니다. 아니 나그네들이 숨은 이야기를 안고 살던 안 살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들은 숨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라반이 야곱을 숨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알았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야곱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더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야곱을 통해 도리어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그냥 양심껏 대해 주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옳게만 대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소유한 자로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알잡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보다 못한 비윤리적인 놈이라고 깔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숨은 이야기를 나누는 나그네 야곱이었습니다.



이영길 목사  
(2010년 3월 21일 주일 설교 중에서.)



# 요한 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7)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값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간구 하나이다.”

말씀과 함께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하기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갑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켜켜히 쌓인 수많은 사연들을 주님 앞에 내려 놓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고귀하신 사랑을 함께 나눌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마음 문을 조금씩 열어 우리 안에 켜켜히 쌓인 고난과 아픔들, 또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와 한 자매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그룹은 요한 반입니다. 서로를 위해 늘 기도와 함께 늘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주님 바라기들

입니다. 우리 요한반에는 자상한 미소가 아름다우신 권사님과 인자하신 장로님, 그리고 사랑과 온정이 흘러 넘치는 집사님들, 또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귀여운 아기와 3대가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예기치 못했던 역경 속에서도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간증들을 나눌 때마다 함께 슬퍼하며 또 기뻐했던 우리 모두는 비슷한 이야기를 안고 사는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견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는 무엇을 내려 놓아야 할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무어라 생각하느냐?”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물으심에 대담할 답을 말씀과 함께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서 함께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심윤보 집사

.....  
기도: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브루클라인 안에 예술 활동을 돕는 비영리 단체 Brookline Art Center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내가 찾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4)

2010년 6월 28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정어머니와 화상 채팅 할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과 신나게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나도 어머니께서 채팅에 들어 오시지 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초조하고 안절 부절하신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앓고 계시는 병은 매우 희귀한 병이라 약도 없고 그저 스스로 신경이 돌아오기만을 바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보지 못한 터라 그저 어이가 없어 눈물만 나오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보러 가려고 했으나 친정어머니는 아이가 돌인 저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는지 혼자 하실 수 있다며 굳이 저를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그 3개월이 저에게는 악몽 그리고 지옥에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성경구절을 알게 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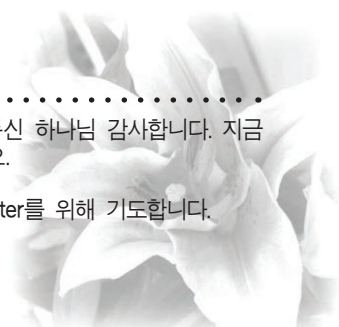
그러길 3개월, 저희 아버지는 점점 좋아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그리고 너무도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3개월, 그리고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마 요즘이 제 인생의 Turning point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한걸음 한걸음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이 저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김민경 교우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주님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주여, 부르크라인에서 노인들을 돕고 있는 Senior Center를 위해 기도합니다.



# 하나님이 사 용 하 시 는 사 람 들

The next time you feel like God can't see you, remember the following people: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NOAH was a drunk...  
노아는 술취한 사람이었고...

ABRAHAM was too old...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ISAAC was a daydreamer...  
이삭은 공상가였고...

JACOB was a liar...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LEAH was ugly...  
레아는 못생겼었고...

JOSEPH was abused...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MOSES couldn't talk.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요.

GIDEON was afraid...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SAMPSON had long hair  
& was a womanizer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RAHAB was a prostitute  
라합은 기생이였고

JEREMIAH and TIMOTHY were too young...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DAVID had an affair & was a murderer...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지요...

ELIJAH was suicidal.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ISAIAH preached naked.  
이사야는 벌거벗은 절교자였고

JONAH ran from God.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NAOMI was a widow.  
나오미는 과부였고

JOB went bankrupt.  
욥은 파산하였고

JOHN the Baptist ate bugs...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PETER denied Christ...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THE DISCIPLES fell asleep while praying...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MARTHA worried about everything.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였고...

MARY MAGDALENE was demon possessed...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웠었고

The SAMARITAN WOMAN was divorced...  
more than once!!!  
사마리아의 여자는 이혼했었고... 그것도 한 번이상...

ZACCHEUS was too small.  
작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PAUL was too religious...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였고...

TIMOTHY had an ulcer...  
디모데는 궤양이 있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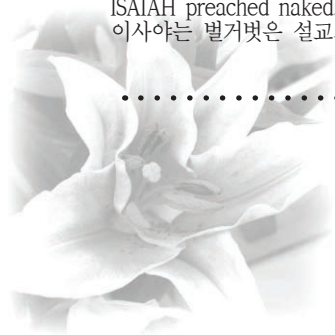
AND LAZARUS WAS DEAD!!!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NO MORE EXCUSES!!!!  
이제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때문에 쓰일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아주 불완전한 사람을 열심히 열심히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김남석 블로그의 “약이 되는 글”에서 따온 글





#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18)

우리는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 부부,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산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다.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이란 말은 세번째 뜻이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는 서로가 다 이웃이 된다.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것이 상부상조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웃을 돕고 보살피 주고 섬겨야 한다. 그 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현대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지구촌) 시대가 되었다. 가까운 이웃도 있고 먼데 있는 이웃도 있다. 이웃이란 말 속에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와 친척들은 당연히 포함되기도 남는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Priceless’란 말의 뜻이 ‘값어치가 없다’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가치를 가졌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나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된다. 내 이웃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이웃의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동참하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 등에도 같이 참여해야겠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로 말하기를 잘하자고 하고 싶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D.N.A로 우리 몸에 배어 있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조화로운, 좋은,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하자. 그뿐 아니라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도 더 많이 쓰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베드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미처 몰라서 예수님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질책을 들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내세우지 말고 상식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겠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김형범 장로

기도: 저희들이 삶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 주여, 부르크라인의 Brookline Community Foundation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 We are called to love our God.

“After me will come one more powerful than I, the thi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Mark 1:7)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like a hidden treasure given to us to seek, find, then engrave within our hearts, solidify in our minds and souls, the truth, which has the power to transform lives... I can go on and on but ultimately, I believe, the Gospel is about love, to love with the love that we have been loved with. We are called to love our God, to love our neighbors and to love ourselves. And that is why maybe we are doing this.

Putting my QT down in writing is hard for me, because when I am reflecting on His words in private, quiet places, His spirit is just felt, and I know it to be true... but like most important experiences in life, it is hard to explain in words but I will try.

I understand the sentiment of this verse. It reminds me of another character in the Book of Mark, someone I can relate to: a woman with an alabaster jar of expensive perfume who broke the jar and poured the perfume on Jesus' head. I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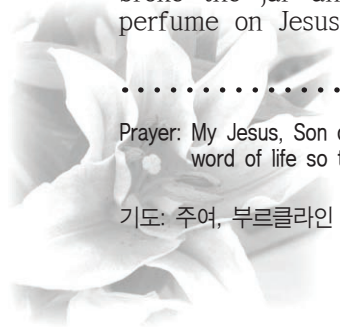
pire to be like her, first, because she was a woman, second, because when she met Jesus, she recognized who He was, the holy and anointed Son of God, her Savior and our Christ Jesus. I pray and hope that I would recognize Him, not necessarily in the physical realm but rather, in the spiritual sense.

The only way I can ensure that is to follow one of my favorite verses, 1 Thessalonians 5:14, which says, “And we urge you, brothers, warn those who are idle, encourage the timid, help the weak, be patient with everyone.” This is my prayer.

황정혜 교우(청년2부)

Prayer: My Jesus, Son of God: I pray for courage to follow you and your Gospel as word of life so that I would recognize you in all the faces I see every day.

기도: 주여, 부르클라인 주민들의 마음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 사랑의 능력(Power of Lov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얼마 전, 우리 교회를 오래도록 함께 섬기다가 수년 전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신 집사님 부부가 이 곳을 사업차 방문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서는 약 2년 전 신장기능 악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생을 위해 본인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셨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만났기에 반가움이 더했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집사님 동생도 4-5년 전 이 곳을 방문하여 같이 운동도 하며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형한테 받은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지금 건강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아름다운 형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형제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결국 사랑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며, 저는 겨자씨만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사랑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뉴욕에 거주하던 저의 고등학교 동기가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결국 때를 놓치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기에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는,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의 능력(power of love)이야말로, 사순절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

조준호 장로

기도: 주님, 겨자씨 만한 사랑만으로도 남을 위해 사랑의 행실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브루클라인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Mother Teresa's Poem

When Mother Teresa, the saint of Calcutta's poor, died a few years ago, a poem in her handwriting was found beside her bed. Whether she actually composed the poem remains a mystery, but the poem has come to represent an appropriate illustration of the human condition.

People are often unreasonable,  
illogical and self-centered.  
Forgive them anyway.

If you are kind, people may  
accuse you of selfish, ulterior  
motives.  
Be kind anyway.

If you are successful, you will  
win some false friends and  
some true enemies.  
Succeed anyway.

If you are honest, frank, people  
may cheat on you.  
Be honest and frank anyway.  
What you spend years building,  
someone may destroy overnight,  
Build anyway.

If you find serenity and hap-  
piness, some people may be  
jealous of you.  
Be happy anyway.

The good you do today, people  
will often forget tomorrow.  
Do good anyway.

Give the world the best you  
have, and it may be never  
enough.  
Give the world the best you  
have anyway.

You see, in the final analysis, it  
is between you and God.  
It was never between you and  
them anyway.

Mother Teresa

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기도 중에서)

기도: 브루클라인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도전을 이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 1-2)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것이며...”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나는 지난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제 12학년도 중간이 지나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3년 반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내 학교생활은 참 굴곡이 많았다.

학교로 인한 스트레스와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또한 많이 체험하였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포기하려 한 적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건널 때도 침몰치 않고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실 곧 있으면 가게 될 대학도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주신 주님에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죄인인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하루하루 감동을 느낀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

방수영 교우 (중고등부)

기도: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 브루클라인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한알의 썩음의 의미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49)

1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인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분과 서로 눈이 마주치면 “김사님! 오늘도 공부하러 내려 가야지요”라며 인사를 나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를 챙기며 어느새 말씀을 사모하는 베드로반의 학생들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말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는 갈망은 많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의 현실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 시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나 이 기쁘고 감사함이 우리에게 그저 흘러 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성인성경 공부반의 체계와 시작을 위한 알의 밀알의 썩어짐이 있었다. 지금도 “김집사” 하고 부르시며 악수를 청하실 것 같은 K장로님의 다감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장로님의 그 몸소 실천하신 그 희생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 매김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임을 안다.

또, 그 바탕 위에 우리 베드로반을 이끄시는 K집사님!

철저한 자료 준비로 매주 반원을 놀라게 하시고, 또한 그동안 한사람 한사람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모양들의 이야기들을 풀어 놓게 하신다.

각자가 겪었던 애굽 생활의 이야기, 광야 40년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고통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가족간에 서로 다른 신앙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풀어 놓음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 서로를 새로 알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랑과 위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성숙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는다. 깨달음과 받은 사랑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사랑 받는 자에서 사랑 주는 자로 변해 있을 것이며 한사람 한사람이 한 알의 썩은 밀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베드로반은 열심히 배우고 사랑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

김동숙 집사

기도: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보스톤 지역의 이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요일/ 4월 6일

# 성탄의 애기봉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이사야 60:19)

韓國分斷 半世紀 (한국분단 반세기)

租國統一 何歲月 (조국통일 하세월)

辛卯大吉 韓半島 (신묘대길 한반도)

聖誕光明 愛妓峰 (성탄광명 애기봉)

한국이 갈린 지 반세기인데,

조국 통일은 어느 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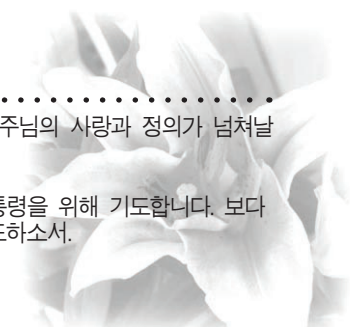
신묘년은 한반도가 크게 길하다는데,

성탄절의 애기봉에 불빛이 밝구나.

백 린 장로

.....  
기도: 주님, 저희 조국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들의 조국, 조국의 위정자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다 나은 변화를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인도하소서.



# Quiet Time Reflection

” For they said to you, ‘In the last time there will be scoffers, indulging their own ungodly lusts.’ It is these worldly people, devoid of the Spirit, who are causing divisions. But you, beloved, build yourselves up on your most holy faith; pray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look forward to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leads to eternal life.” (Jude 1:18-21)

We are not made to be perfect. However, we have the power to decide how we will live our lives. One path leads to worldly goods as well as temptations and the risk of falling short from the grace of God. The other path leads to Heaven and eternal life. Of course we always want to say and believe that we would follow the path to God and Heaven, but it’s easier said than done. How do we know we ar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What are the steps we need to get there? What results will we see if we get to the end? How will I be able to help others?

The Bible tells us to be wary of people who only care about the riches of the world. The problem is that we live in a world that teaches us that being rich is our way to heaven. It is inevitable that one of these days, we will fall into this trap. We have to pray that God will enter our hearts and lead us down the rightful path. Sometimes, I fear that if God were to come into my heart, my identity would completely change. I

fear having to go to the extreme to serve God. But, I have learned that God is fair and that He would never purposely lead us to harm. He places temptations in our way but never so much to overload us. No one knows us better than God and He is always there for us every step of the way. The Bible says that God will bring the Holy Spirit upon us - that alone will bring us closer to God. As we get closer to God’s love, we develop a deep bond with God and through His grace, we gain eternal life.

After gaining this knowledge, I know that it is my responsibility to spread the word of God so that everyone else can be exposed to the great secrets that God has for us. In this way, I will gain salvation and eternal life.

Jin Ahn (Youth Group)

Prayer: God, please lead me down the righteous path and help me every step of the way.

기도: 브루클라인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여 주소서.



# 세상을 바꾸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18)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대목을 생각 하다보니, 강인선 기자가 쓴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강인선 기자가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던 시절, 그녀가 자주 가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은 그녀는 허겁지겁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만 그녀의 주특기인 ‘핸드백 휘둘러 물컵 넘어뜨리기’를 해서 옆 테이블에 앉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남자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사했습니다.

순간 식당 안에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그녀를 포함한 2명의 웨이터가 냅킨과 함께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고 좋네요. 참 제가 오늘 아침 샤워를 하지 않은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시원한 물세례를 해주셨는지...”

남자의 너스레에 식당안은 웃음이 번졌고, 연이어 “ 레드 와인이 아닌게 다행이죠. 걱정마세요.” 라는 윈크 섞인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대소동은 마무리 지어졌고, 그녀는 친구와 웃으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며 사랑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생을 변화 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처럼 이미 벌어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상황 대처 능력,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식당 분위기 전체를 웃음으로 바꾸는 재치를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김성기 교우 (청년 1부)

.....  
기도: 사랑의 눈으로 모든 이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주여, 부르크라인 근교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 교포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종으신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7)

지난 12월 어느 토요일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가 세계 신기록에 도전장을 냈다고 인터넷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인즉 크리스마스 캐롤을 프루텐셜 광장에 모여서 함께 시민들과 부르는데 7,000명이 모이면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한 사람당 \$1씩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딸 아이와 친구, 저 이렇게 셋이서 구경을 가기로 하고 지하철을 타고 하인즈 컨벤션 센터역에서 내려 걸어 갔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카운트를 하고, 가사를 적은 흰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맨 앞쪽으로 가서 섰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주춤에서는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0분쯤 지난 후 어느 악단 단원들이 미니버스에 타고 손에 악기를 들고 관중들을 향해서 환호하였고 사람들은도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딸아이, 친구, 저 모두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후 저녁때 딸아이가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기에 “왜?” 했더니 “제가 당첨이 되었대요. 보스턴 팝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후 여러번 이메일과 전화가 오고가고 악보도 보내주고 오케스트라 섹션 표 두장과 함께, 담당자도 보스턴 팝스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걱정이 된다 고. . .

드디어 12월 세번째 주일 저녁 우리가족은 딸, 아들, 저 셋이서 구경을 가기로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케임브리지에 살기에 심포니홀 안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의 티켓은 크

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구입했구요.

순서가 두번 지나고 세번째 딸 아이가 무대로 가서 함께 노래한다고 올라가고 저는 가슴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틀리면 어쩌나 간단한 몸짓도 있었고 했기에, 지휘자 라커트씨가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름은 이 웅순이고 보스턴 한인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합창단 오른쪽 여자분들 맨 첫 번째줄 끝에 머리에는 빨간 실타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색으로 입고 오라고 해서). 그 때 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팔을 활짝 벌려 인사를 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염려했던 것 보다는 잘 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하고 간단한 팔 동작도 잘하고, 끝나고 합창단 매니저라는 잘 생긴 청년이 함께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다음에 오디션 9월에 있으니 오디션보고 합창단에 들어와서 함께 노래하자고 하면서 모두들 자기 일들을 가지고 취미로 하는 분들이라고. . .

종으신 하나님! 그 날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어서 세계 신기록은 실패를 했지만 3천분의 1 확률 오직 한 사람이 당첨되어 함께 캐롤도 부르고 또 티켓 두 장 받아서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고 즐거워 합니다.

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보스턴 팝스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아, 참 종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숙재 권사

기도: 종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 주여, 부르크라인과 보스턴 지역의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4월 10일

## 목 상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단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 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이태석 신부



# 경 청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시편 85:8)

저희 집 아들 이은호는 경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자신의 요구에 엄마나 아빠가 대답이 없으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엄마, 내 말 안 들려?(안 듣고 있어) “아빠, 내 말 안 들려?”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말에 경청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받고 싶어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즈음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경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보니 하나님은 항상 제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받은 경험이 분명 제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주 추운 겨울에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마자 ‘하나님, 저는 몹시 춥고, 집에도 빨리 가야 하니깐 다른 번호 말고 집에 가는 버스 번호가 붙은 차가 5분 내로 오게 해주세요. 제 말 듣고 계시죠?’라며 기도했고 몇 분 후에 바로 그 번호의 버스가 유유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 하나님

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며 마음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께 나는 사랑 받는 존재라는 자부심에 씩씩하게 버스에 올라탔던 기억이 납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닌 기도에도 주님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청에 대해 다루는 책을 읽다가 문득 주님만 내 말에 경청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옳다, 아니다만 해주시면 되는구나, “그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마”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책을 통해 경청이란 성품을 목상하면서 주님도 은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받고 싶어하시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은서와 은호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중한 은아의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게 성경을 통해, 일정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겠지요.

정은아 집사

기도: 경청의 연습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듣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 주여, 우리 한인 교포들도 지역봉사와 참여에 더 활발한 일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오늘 나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61-62)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며 십자가에 매달라고 절규하는 이들로 인해 슬픔에 잠긴 예수님의 눈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요? 내가 바로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기도 드리는 예수님의 눈

얼마나 보여 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말입니다.

말없이 흐느끼며 이들을 사랑하는 그 눈을 나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곧 부활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곧 죄인의 구속임을, 그 구속으로 인해 내가 천국에 가게 됨을,

끌고다로 향하는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에 못 이겨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피가 되어도 세상 죄를 구속하려는 애절한 사랑의 눈.

믿음으로, 천국에서 나를 볼 때 환하게 웃으실 예수님의 다정한 눈을,

가시관에 찢려 흐르는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눈 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사랑하려는 평화의 눈. 두 눈이 겹쳐져 나의 가슴을 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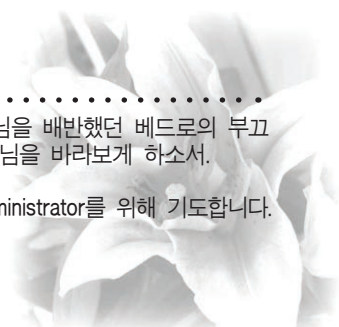
그 다정한 눈을 나는 오늘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으려 애썼을까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고통의 길을 말입니다.

최정열 집사

.....  
기도: 지금도 연민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눈길에 아님,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 브루클라인을 위해 수고하는 Selectmen과 타운홀 Administrator를 위해 기도합니다.



# 더불어 함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1)

언젠가 아침 목상시간에 읽은 한 글에서 어느 프랑스 시인의 글을 인용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만하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섬뜩하게 느껴진다.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주일 설교중에 미국의 졸업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운동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이유는 훈련 (discipline)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시작할 때는 다른 친구들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선수들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고, 이것이 이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일 것이다.

이처럼 생각과 생활을 연결하는 고리는 연습, 나눔, 그리고 격려일 것이다. 함께 연습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생각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이다. 깊은 생각, 좋은 생각이 없다면 생각하는대로 산다는 것이 무의미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축복일 것이다.

요즘 나는 깊은 생각, 좋은 생각을 주는 말씀을 배우는 축복, 또 깨달은 말

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축복을 매주 누리고 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일에 시편 1편 ‘당신은 행복한 사람’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는 더불어 함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가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삶의 자리에서 연습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값진 공동체가 되었다. 늘 시간이 좀 짧아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나로 설레임을 가지고 다음 주를 기약하며 기다리게 한다. 나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좋은 말씀을 계속 듣고, 도전받고, 또 격려받으며 반복하지 않으면 금세 주저앉아 편하고 쉬운 것을 즐기려 한다. 이런 나에게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새 가족부대이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고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일부가 안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주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14:21)’ 라고 하셨다. ‘지키는 자’는 저절로 혼자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면서 말씀 순종, 나눔, 격려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박신영 집사

기도: 주여, 말씀 안에서 순종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 주여, 브루클라인의 외로운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 산 제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창세기 4:4)

21개월 된 아들은 하루 종일 정신 없이 바쁩니다.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최대의 시간은 약 5분. 방과 거실을 정신 없이 뛰어다니고, 화장실 변기 속에 손도 휘휘 저어보고, 과일을 담아 준 그릇은 과일을 다 먹고 나서 휴지통에 버리고 잘했다며 박수를 칩니다. 아이를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에게서 ‘21개월 된 정신 없이 바쁜 아들’이라는 excuse가 있으니까요……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떨까……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제사만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너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네 생각을 알기를 원하고, 너와 깊은 교제를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민영 교우

.....  
기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기도: 주님, 부르클라인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나게 하소서.



# Soccer, *Sohnahghi*, and Umbrellas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love is not envious or boastful or arrogant...”  
(1 Corinthians 13:4)

“Oh, no! There aren’t any sandwiches for the athletes!”  
The onlookers had eaten most of the food at the soccer game on that hot, humid summer’s day. The friends and family of the KCB soccer team had gathered on the green by the field in a park in Brookline, Massachusetts.

Hungry, while the crowd enjoyed lunch around a picnic table, the athletes called recess and headed toward them. Quickly, my friends and I drove to the nearby Shaw’s.  
When we reached the field with more food, cool drops of rain began to fall.

“Quickly! Come on! Let’s make sandwiches for the players!”  
In the rain that had become *Sohnahghi*, the women gathered around the picnic table forming

an assembly line to make turkey and ham sandwiches to go.

“When did the rain stop?” I looked up. Oh, my! The canopy of umbrellas!  
Where did they come from? Then I noticed the men, in the rain, standing behind the women, holding up the umbrellas, getting soaked in the *Sohnahghi*.

On that hot humid Sunday afternoon, we women of KCB became princesses guarded by the men of KCB who were cooler than Gene Kelly and Braver than the knights of King Arthur.

이혜원 집사 (Hae Won Lee)

Prayer: Thank you for your love pouring down on us from heaven.

기도: 보스턴 노회와 브루클라인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인연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어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 5-6)

고등학교 1학년 첫번째 교련 시간, 아직도 뚜렷이 기억되는 강한 한 마디 말을 써주셨던 선생님을 만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련 선생님이 사복 수녀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 선생님이 하시는 교리 수업을 매 주일 성당에서 듣고 고 3이 되는 해 2월에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믿음생활은 시작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천주교 재단 학교도, 미션 스쿨도 아닌 일반 공립학교였다. 보통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는 상황에서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당시에 그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 학년을 맡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건 정말 큰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전통적인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냉담자가 되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셨기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남편이 불신자였기에 며느리로서 시어머님을 따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보스턴에 오면서 동네분을 따라 나가게 된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미국 장로교에 속한 퀸지영생장로교회였다. 그 곳에서 정말 닭

고 싶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성경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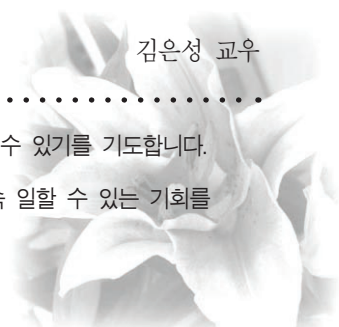
그러나 나의 믿음의 여정은 불신자인 남편으로 인해 순탄치 않았고 결국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기를 몇 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김효석 목사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해주셨고, 목사님덕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길 잃은 양인 나를 계속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김효석 목사님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인해 보스턴 한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께서 시작해서 퀸지영생장로교회 장로님, 김효석 목사님, 그리고 구역모임을 할 때마다 나의 믿음을 다시 다지게 해주는 구역 식구들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인연을 생각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인연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믿음의 인연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김은성 교우

기도: 주님, 저희 모두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인연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주여, 매일 직장을 찾는 일용직 노동자 분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 복음 19:30)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주님은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가롯유다에게 팔리신 후 베드로에게 배신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에 침묵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저는 이해인 수녀의 시를 통해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인 수녀가 다음과 같이 은연 중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병상일기2.

“아플 땐 아프다하고  
신음도 하고  
슬프면 눈물도 많이  
흘리는 게 좋다고  
벗들이 나에게 말해주지만  
진정 소리 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는 나의 아픔과 슬픔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  
그들은 내게 딱 부러지게  
대답은 안 했지만  
침묵을 좋아하는 눈빛이기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지  
끝내 참기로 했지.”

우리 주님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끝까지 참지 않으셨을까요? 도리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서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위험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 길을 마친 후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영길 목사  
(2010년 3월 28일 주일 설교 중에서).

## 영혼의 목마름 II

늘 채워지지 못한 목마름으로  
주님 당신 앞에 섭니다.  
늘 가까이에 계신 당신이지만  
먼곳에 계신 것처럼  
방황하곤 합니다.

주님! 늘 당신을 향한 심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허덕이면서도  
아직 마음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하지 못함은  
어인 까닭인가요?

아직 내 마음 가득히  
세상을 향한 욕망과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은  
당신을 위해 온전히  
내 마음 비우지 못한 까닭이지요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므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목마름 채워가게 하소서.

시인 한혜영  
[이민문학 2] 중에서

.....  
기도: 이 사순절 기간 매일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기도: 주님, 이 지역에서 어려운 조건 가운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화요일/ 4월 19일

#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13)

주님,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소서.

끝없이 다른이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교만해지는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서서  
애통해 하는 세리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해도  
가슴치며 눈물만 흘리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명은 집사

.....  
기도: 보잘 것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아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위정자들과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 은혜의 봄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 6)

Zaccheus was wee, little man.  
And a wee, little man was he.  
He climbed up in a sycamore  
tree. For the Lord he wanted  
to see...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내 인생에 목자  
가 되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늘 잔잔  
하게 들어주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  
심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곧 버틸힘이 생기기도 한다.

나의 5살된 손주 Andrew 가 이따금씩  
흥얼거리는 노래다. 뽕나무 위에서 예  
수님을 멀리서 보기만 했던 삭개오와  
같았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멀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봄비가 살며시 나의 영혼에 따스하게  
다가오기를 기다려 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내가 죄  
인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꿈을 좇아 살고 있었다.

김중희 집사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보  
혈로 씻어주셨으며,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  
하며 살고 있다.

.....  
기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 합니다.

기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Little Giant

“Yet now God in his gracious kindness declares us not guilty. He has done this through Christ Jesus, who has freed us by taking away our sins.” (Romans 3:24)

Losing someone we truly love is an inevitable process of life and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learn to cope with as a human being. But when it comes to our own parents and children or our loved ones, we often find ourselves struck by indescribable devastation and faced with one of life’s most difficult questions: Why, God?

I had lost my best friend about two and a half years ago. And my best friend happened to be my father. I was so devastated by the loss to the point that I felt paralyzed. It was my ‘why’ questions which led to an initial resentment toward God; and yet ironically, it was my ‘why’ questions which also helped me find Him.

Why was my father diagnosed with one of the rarest brain cancer in the world? He was a loving, kind, gentle, and passionate human being who served the Lord as an elder for many years.

In the midst of my struggles, I came across a scripture regarding the crucifixion of Jesus one day. Of course,

as a Christian, I had learned about this so many times before. However, for some miraculous reason, I had truly contemplated on His sacrifice at that moment. I raised two important questions for myself: First, could I have allowed my own child to be sacrificed to save my neighbors? Second, could I have obeyed to shed my own blood to save my neighbors? The answers were No and No.

Our Lord was crucified and hung between two convicted thieves at Golgotha; he was mocked, crowned with thorns, beaten, and spat on by Roman soldiers in order to atone for our sins and for our salvation.

Satan frequently challenges our motives for serving God. And often we tend to blame our shortcomings on God. Time is difficult today. It is so easy to give up and to get stuck in our lives. But we must not forget that each of us has a ‘little giant’ inside our hearts who died for us simply asking us to share His love and kindness with our neighbors until we finish our own journeys in this beautiful world.

구용한 집사

Prayer: Lord, help us realize that radical changes in our lives are only one prayer away an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You. Amen.

기도: 조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죄를 인하여  
주님의 손 광광 박히고  
손으로 지은 나의 죄  
죄를 인하여 못이 박히고  
주님의 발 녹슨 대못 땡땡 박히고  
발로 지은 나의 죄 죄를 인하여  
또 못 박히네  
마음속의 나의 죄  
옹졸하고 사랑 없는  
우리 죄를 인하여 창에 찔렸네  
못 박히신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고통에 겨워 겨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처절한 절규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네

애광 김현호 시인

.....  
기도: 저희로 하여금 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 니카라과, 페루,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연변 등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 십자가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4)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기억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란 단지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죽음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만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또한 진정한 사랑을 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당신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중에서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교육부)

기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기도: 주님, 이 보스톤 지역의 정치인들과 패트릭 주지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다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지혜를 더하소서.



## 부활의 아침

후미진 골짜기에서  
개나리 꽃이  
금빛 나팔을 불고 있다  
다시 살아 나셨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다시 살아나셨다

허리 굽은 벚나무가  
상채기 났던 티눈마다  
눈부신 꽃등을 켜고  
어서오소서 어서오소서  
대망의 주님 어서오소서  
화답하고 있다

골짜기의 나무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웃갈아 입고  
밝혀주소서 밝혀주소서  
새롭게 이 땅을 밝혀주소서  
합창을 하고 있다

어둠이여 물러가라  
분쟁이여 물러가라  
넷가의 자갈들이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고 있다

시인 박지혜



# 나의 묵상과 기도



# 나의 묵상과 기도



\* 2011년도 사순절 묵상집의 출간을 위하여 귀한 원고를 보내 주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작년도 사순절 묵상집 (2010) p.20에 Mt. Mckiley를 Mt. McKinley로,  
Mt. Hanter를 Mt. Hunter로 정정합니다.

.....  
본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 ([www.kcboston.org](http://www.kcboston.org)) “기도와 묵상”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